

아특별법 기간 연장·국비 확대… ‘문화중심도시 3.0’ 완성해야

종료 3년 앞두고 ‘국회 토론회’
컨트롤타워 재정비·국가책임 강화
국비보조율 70% 상향 조정 등 시급

오는 2031년까지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종료 시점이 2028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조한 국비 투입률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국비 보조율 상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로 도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광주시와 민형배·박군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8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2004년 문화중심도시조성기획단 출범과 2006년 아특별 제정으로 시작된 조성사업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 종합계획은 2028년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토론회에서는 총사업비 5조2912억원 가운데 절반만 집행된 채 특히 보조사업 투입률이 27.3%에 그쳤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류재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은 “2024년 말 기준 조성사업 총사업비 대비 투입 금액은 50.3%에 불과하며,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비 투입률은 27.3%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조성사업의 핵심인 5대 문화권 사업 등이 미완인 상태에서 법이 종료되면 사업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며 “현재 2031년까지인 아특별의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4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사업 종료 시점을 2033년 까지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류 회장은 또한 2022년 이후 구성되지 않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광주시에 시장 직속 ‘(가칭)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광주광역시 사업단’을 발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언도 나왔다.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분석하며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각종 기반 시설 확충으로 광주의 문화 자산은 늘었지만, 국가 직접사업(91.8% 투입)에 비해 지자체 보조사업 투입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요구도 거졌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30%대(2024년 기준 39.8%)로 떨어진 상황에서 5대 5 매칭 방식의 국비 지원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 센터장은 “아특별 제48조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5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경은 전남대 교수는 사업 추진 체계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아특별 일몰 후에도 사업이 지속되려면 광주시가 주도하는 ‘통합추진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문화전당 집중 방식에서 벗어나 5대 문화권 특색화와 AI(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융합플랫폼 구축으로 3.0 시대의 비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측 토론회자로 나선 김영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은 “아특별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 분석과 논리



옛 전남도청 복원과정에서 철거됐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이 이전보다 기술과 예술이 진화된 문화 플랫폼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30일 방문객들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반복되는 실집행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특별 개정’과 ‘국가 책임 강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특별 연장과 국비 보조율 상향, 전당 조직 강화 등의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새꼬막 채묘기술 논의 ‘어촌현장 소통 간담회’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8일 ‘2025년 새꼬막 어촌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채묘기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새꼬막 작기 채묘 작황조사(점검·조사방법·해양환경조사 등), 여자만·득량만 새꼬막 채묘작황, 2025년 생산동향, 새꼬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유통 관련 현안 등이다.

전남의 새꼬막 생산량은 연간 4456t으로 전국 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여자만과 득량만 생산량은 전남 전체의 86%를 차지해 동부권

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새꼬막 채묘 시기(6월~8월) 매주 3~4회 이상, 여자만과 득량만 해역 37개 정점에서 새꼬막 유생 출현량을 조사했다. 유생 분포와 밀도, 해황 자료 등을 실시간 분석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채묘 성과 극대화에 성공, 당초 계획보다 80% 높은 채묘 성과를 거뒀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새꼬막 양식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혼자 쓸쓸히…광주·전남 ‘고독사’ 5년간 1129명

1인 가구 비중 늘고 미취업률도 높아
증장년층 4명 중 1명 소득 없이 막막

광주·전남에서 5년간 1129명이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1인가구 3명 중 1명꼴은 미취업 상태로, 이들의 고립을 막기 위해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4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고독사 사망자 수는 231명으로, 전년(214명)보다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94명에서 119명으로, 26.6% 고독사가 늘었다. 전남은 120명에서 112명으로 소폭 줄었다. 광주 고독사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 7.2%를 크게 웃돌았고, 서울(40.3%), 부산(27.9%)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광주·전남에서 쓸쓸히 임종한 이들은 2020년 232명, 2021년 235명, 2022년 217명, 2023년 214명, 지난해 231명 등으로 5년간 1129명에 달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인 가구는 광주 23만2210명·전남 30만1494명으로, 1인가구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전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31.1%·전남 32.1%였지만 지난해에는 광주 36.9%·전남 37.7%로 높아졌다.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사는 1인가구의 경제 사정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1인가구의 미취업률은 광주 35.7%·전남 33.8%에 달했다. 1인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중은 광주 20.0%(4만6353명)·전남 19.6%(5만9043명) 등으로, 전국 평균 비율 17.4%를 웃돌았다.

전체 1인가구 가운데 아파트에 사는 비중은 광주 51.6%·전남 33.0%로, 광주는 전국 평균 아파트 거

주율(35.9%)을 크게 웃돌았다. 전남에서는 단독주택에 사는 1인가구 비중이 56.1%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에서 혼자 사는 3가구 중 1가구꼴(광주 28.9%·전남 27.0%)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할 40대~50대였다.

전남은 60대 이상 1인가구 비중이 53.1%로, 전국 평균 비중 37.4%의 1.4배에 달했다.

국가데이터처 ‘생애단계별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4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가운데 소득이 없는 비중은 광주 22.4%(12만8700명)·전남 27.0%(28만5700명)에 달했다. 한 해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비중은 광주 19.6%·전남 20.7%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없는 중장년층은 광주 23.2%(13만3174명), 전남 25.0%(17만2186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

‘최악 대통령’ 윤석열… ‘잘한 대통령’ 노무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한 비율은 77%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직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잘한 일’이 많다’는 긍정 평가는 12%에 그쳤다.

부정 평가 순위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전두환(68%), 박근혜(65%), 노태우(50%) 전 대통령 순으로 집계됐다. 이명박(46%), 문재인(44%), 이승만(40%) 전 대통령 역시 공보다는

과가 크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68%를 기록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호평을 받았다. 부정 평가는 15%에 불과했다. 이어 박정희(62%), 김대중(60%), 김영삼(42%) 전 대통령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갤럽 측은 2012년부터 5차례 진행된 조사 흐름을 분석하며 지난 10년 사이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여론이 상승하고 부정론이 줄어든 점을 들어 일정 부분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계림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청산 공고(2차)

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및 「민법」 제87조에 따라 2023년 10월 14일 조합총회 의결로 해산되어 청산절차 진행을 공고합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025년 12월 22일 이내에 본 조합(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34-1, 3층, 청산인 한수영) 앞으로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계림2구역정비사업조합
청산인 대표 한수영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 11. 28.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금1,910,000원 중 금 6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 1,850,000,000원으로 감소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6,000주를 1주당 금18,000원으로 하여 임의유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주식총수 191,000주를 185,00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회사의 구 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주식회사 대영동운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136(태인동)
대표이사 오윤석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